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할 최고주권기관 대의원선거

다가오는 3월 9일 공화국에서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지금 누구나 공화국의 력사에 또 하나의 뜻깊은 장을 아로새길 이번 선거에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면서 선거날을 기다리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948년 9월에

인민을 위한 참다운 민주선거

공화국에서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지난 기간 진행된 선거들에서는 인민의 대표들이 최고주권기관의 대의원로 되었다.

그중에는 평범한 신발수리공도 있고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시설관리공, 탄부도 있으며 심심산속의 산림감독원, 지식인, 종교인들도 있다. 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기준은 나라와 인민을 위해 얼마나 일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그 능력이 인정된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든 대의원이 될수 있는것이다.

5년전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선거된

조직된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그 임기는 5년이다.

2009년 3월 8일 공화국에서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이번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것이다.

대의원들가운데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꾼들을 비롯하여 과학자, 기술자, 예술인들과 함께 군인이 16.9%, 노동자가 10.9%, 농장원이 10.1%, 녀성이 15.6%를 차지하였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 하원의원후보로 나서려면 평균 100만US\$의 선거비용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얼마 안되는 월 임금으로 살아가는 미국의 노동자들에게는 일생을 벌어도 못다 벌 막대한 금액이다. 때문에 돈없는 사람은 애당초 국회의원이 될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공화국에서 선거에 참가할수 있는 공민의 권리는 법적

으로 보장되고있다. 선거장에 특별한 사정으로 갈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동선거를 할수 있게 되어있다. 인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소중한 권리를 누구나 빠짐없이 행사하라고 선거는 국가적인 휴식일에 진행되곤 한다. 오는 선거일 3월 9일도 일요일이다.

공화국의 선거는 철두철미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선거이다. 그래서 누구나 선거에 관심이 많고 빠짐없이 선거에 참가하곤 한다.

선거가 진행되는 날은 온 나라가 명절분위기이다. 남녀로소 할것없이 떨쳐나서 출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안고 투표를 한다. 2009년 3월 8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지켜본 한 해외동료는 《유권자들이 새벽일찍부터 나와 출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선거의 하루를 즐거운 명절로 맞고보내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애국애족의 그마음들에 떠받들린 공화국을 통해서 공화국의 정치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남김없이 파시되게 될것이다.

선거만 시작되면 상대후보를 떨구어뜨리기 위하여 갖은 인신공격을 가지고 없는 흠집

도 만들어내며 여론을 조작하는 자본주의세계의 일반적인 선거풍토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 아닐수 없다. 왜? 강물이 오염되니까.》라는 유모아까지 나돌았던것이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의미

이번 선거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총심, 령도의 유일총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파시하는것으로 된다.

지난 2월 3일 진행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대회에서는 경에하는 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였으며 이어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선거자대회를 열고 그이를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였다.

이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신뢰와 지지의 열기가 얼마나 높고 굳건한가를 보여주는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화국의 정치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령도자를 중심으로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더욱 남김없이 파시되게 될것이다.

자, 범법자들이 국회로 간다. 교통사고가 나서 베스가 강에 빠진다면 국회의원부터 제일먼저 건져야 한다. 왜? 강물이 오염되니까.》라는 유모아까지 나돌았던것이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또한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는 뜻깊은 정치적사건으로 된다.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지금 공화국에서는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변혁이 창조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 2014년 신년사에서 올해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고 밝혀주시었다.

지금 온 나라에 새로운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이런 력사적시기에 진행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해 인민정권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정치적열의속에 부강조국건설이 다그쳐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춘 경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 브라질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반대성 브라질위원회가 2월 1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장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는 3월 9일은 조선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있음으로 하여

모든 공민들이 선거에 참가하고있다. 조선식선거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선거원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조선에서는 선거를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따라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 나라 헌법에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별,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있다. 그 우월성은 또한 선거조직과 절차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철저히 실현되고 그들의 권의가 최대한 보장되고있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인민자신이 조직하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주권의 본질적특성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본사기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조선－어린이들의 천국》 월남인터넷 옥류아동병원을 소개

월남의 인터넷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가 2월 10일 《조선－어린이들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옥류아동병원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글은 조선사람들은 유능한 의사들과 깨끗한 병원, 무상치료의 혜택을 보장해 주고있는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해 커다란 긍지를 안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옥류아동병원은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개원된 현대적인 아동의료봉사지이다. 병원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이로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치료를 받을수 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몸소 아동병원건설을 지도해주시고 병원리듬을 《옥류아동병원》으로 명명해주시었다. 병원은 6층으로 되어있으며 일류급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한다. 여기에는 최신식의료설비들을 갖춘 각종 치료 및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들과 놀이장, 휴식장들도 있으며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어린이들을 위해 교실들도 꾸려져있다.

어린이들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한다.

옥류아동병원과 함께 류경구강병원도 새로 훌륭히 일떠섰다.

이곳에서 평양시민들은 무상으로 이발치료를 받는다. 참으로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는 조선사회의 복리의 특징이다.

이 나라의 인터넷신문 《바오 머이》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홈페이지들도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옥류아동병원을 소개하는 동영상자료들과 함께 올렸다.

본사기자



조국방문인상기

인민군대, 그 부름에는

공화국에서 제국주의세력의 반공화국제제를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하고있는 비결은 선군정치에 있다고 본다.

서방에는 공화국의 선군정치라고 하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러했던것처럼 군권에 의거한 강권정치같은것으로 리해하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때는 나도 선군정치에 대해 잘 몰랐었다. 그러던 내가 고국의 선군정치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2001년 백두산관방을 갔을 때였다.

황해남도 은률태생으로 1951년에 남조선에 나가 북에 대한 악선전만을 들어왔던 나는 인민군군인들이 사회주의건설마다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해제하는것을 보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공화국의 군대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군대였다. 고국방문의 나날에 보고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한것은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수십년세월 침전되었던 감랑을 단 며칠동안에 퍼냈

도 인민군군인들이었고 단순예의 정신으로 대규모 최전발전소를 붙이 번쩍나게 일떠세운것도, 현대적인 문수물놀이장과 문수기능회복원, 미림승마구락부, 마시령스키장을 비롯하여 세인이 경탄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도처에 일떠세운것도 다름아닌 인민군군인들이었다.

고국에서 왜 군대라는 부름앞에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칭호를 붙였는지 비로소 리해가 갔다.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공사들을 섣뚝 맡아서면서도 주변지역 인민들의 리익을 털끝만큼이라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엄격한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나고 오히려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위한 좋은 일들을 찾아하고있었다. 큰물이 나면 운송비행기가 동원되어 인민들을 구원하였고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에서도 군대가 앞장에 서서 해제끼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이다.

군대가 조국보위도 창조와 건설도 다 맡아하며 인민을 위한 헌신에서 기쁨과 락을 찾는 이런 희한한 현실을 고국말고 어디서 찾아볼수 있겠는가.

그들이 진정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새로운 건축물들마다에 자기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칠수 없을것이며 그렇듯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된수 없을것이다. 평화를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북의 군대는 오늘날 총대로 인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창한 창조사업들을 벌리고있다.

실로 선군으로 부강번영의 만년기틀을 마련해나가는 선군정치가 있어 고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공화국의 선군정치가 제일이라고 말하고싶다. 그리고 북을 바로 알려면 누구든 북에 와보라고 권고하고싶다.

재오스트랄리아 동포전국련회 회장 박용하

평안남도 평성시 은덕동에 는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고 존경을 받는 한 체육인가가 있다. 아버지에서 자식들이 대를 이어 권투계에 몸담고있는 쉽지 않은 권투가문이다.

김귀하로인 그리고 세명의 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 일가가 대를 물려가며 권투를 하고있는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김귀하로인은 원래 일본에서 살던 동포였다.

《내가 권투를 하게 된것은 일본땅에서 주먹만 세면 조선사람으로서 인정받을수 있고 돈도 생긴다는 나름대로의 일가견에서였습니니다.

인생의 황혼기라 하는 70개계를 넘은 지금에 와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조국을 떠난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조국이 없는 체육인의 명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이 바로 내 인생의 총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족적차별속에 어린시절을 보낸 그가 프로권투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것은 어느때인가 니시노미야 야구경기장에서 있는 프로권투시합을 구경한 후였다.

그때 그는 권투장에 올라가 일본선수들을 보기 좋게 꺼꾸러뜨리는 우리 동포선수들을 보면서 권투를 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오직 패권을 쥐여야만 한다는 야심을 안고 필사의 노력을 다한 덕에 그는 1957년에 일본배자국(57.15kg)의 신인패권을 취하게 되었으며 베이겐권투구락부에 들어가서부리는 전일본배자급, 라이트급(61.23kg),

미들급(72.57kg), 그후에는 동양미들급의 패권자로 되었다. 일본권투계의 패권자가 되였지만 그는 경기장에 나설 때면 일본식이름을 달아야 했고 무서같은 주먹으로 상대를 누르고 우승한 뒤에 차례지지는것은 맺음의 돈이 교작이었다. 세계패권을

권투일가로 불리우는 긍지를 안고

위면 돈이 없어 고생하는 부모형제들을 먹여살릴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허무한것으로 되었다.

1965년 10월 일본선수 가이즈와 전일본선수권쟁탈전을 벌리던 때 그는 자기가 분명 이겼다고 생각했고 이 경기를 본 사람들이 모두 그가 이긴것으로 단정했었다.

그러나 일본인심판원은 비겼다고 선언하였다. 단지 조선사람이라는 리유로 해서 웅당한 평가도 받지 못하고 경기장을 내려야 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피눈물이 흐르는듯 했다. 금전을 걸고 시합장에 나서곤 하는 자신의 처지가 가증스러웠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차츰 저멀리 바다 건너 공화국의 품으로 달리었다.

그가 공화국으로의 귀국의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된것은 1966년 3월 남조선의 서울에서 진행되는 동양선수권패권 경기를 앞두고서이다.

당시 일본당국은 공화국국적을 가진 김귀하선수가 남조선국적으로 바꾸어야만 경기에 나갈수 있다고 강요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돌

려세워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지지정원을 아끼지 않은 총련과 공화국의 믿음이 너무도 소중한기에 그해 4월 제136차로 귀국의 배에 몸을 싣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는 자기의 체육인생을 공화국기

를 더 많이 행성의 창공에 휘날리기 위한 후비선수육성에 바치였다.

《나에게서는 전도양양한 후비선수들을 키워냈을 때가 제일 기쁘고 행복한 때입니다.》고 하면서 그는 1986년 8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23차 전국체육소조대회 권투경기에 참가한 소조학생들이 6개 몸무게급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지도밑에서 권투를 배운 많은 제자들이 전도양양한 선수들로 성장했으며 여러 경기장에서 순위에 입선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의 가족을 놓고 보더라도 세 아들모두가 권투를 배워 만이 김성덕과 둘째 김성지는 여러 경기장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으며 셋째 김성룡도 우수한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

《체육감독은 뛰니 뛰니 해도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 선수들을

키워냈을 때 자기의 본분을 다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젊어서 훌륭한 선수들을 더 많이 키워내지 못했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때문에 내 몸까지 합쳐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릴 전도양양한 선수들을 키워내라고 자식들에게

를 이르곤 합니다.》 지금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권투집안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김귀하로인이 20여년간 권투감독생활을 하면서 키운 수십명의 선수들이 조국의 명예를 빛내인것에 대해, 자식들까지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권투계에 몸담고있는 데 대해 사람들은 흔치 않은 가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

것을 달곤 한다.

《아마 우리 아버지가 일본땅에 살았다면 우리 가족이 권투일가로 불리우는 오늘과 같은 긍지를 느끼지 못했것일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가 삼가운 권치도 보여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체육강국건설에 적은 힘이 나마 기여하러는 우리 일가의 결심과 의지를 더욱 북돋아주고있습니다.》 공훈체육인인 딸아들 김성덕의 말이다.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공화국을 하루빨리 체육강국으로 만드시려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구상따라 김귀하로인의 일가는 오늘날 금메달을 향한 권투기술훈련에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주 일 봉



김 귀 하 로 인 의 가 정